

한국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의 형성과 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

김 지 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 기 범[†]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다차원적 이론으로 설명하고, 한국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사회적 상황의 구조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상황은 개인 행동의 지침으로 작용하는 자기개념, 욕구, 동기와 상호작용한다는 이론모델을 문화간 비교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여대생 13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행위 규범의 내용과 행위 규범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사회적 평가와 비난의 내용 및 심리적 결과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 여성스럽지 못하거나 여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목록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았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며, 심리적으로는 부끄러움이나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행동 제지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문화, 여성, 사회적 규범, 다차원적 접근, 사회적 제재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2-H00010)

† 교신저자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E-mail : purple66@skku.edu

여성이 특정 장소나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여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과 심리를 제약하게 하고, 성역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야기한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진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수행 및 사회적 규범은 남성과 여성이 생식을 위해 그가 속한 사회-문화-역사적 환경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Golombok & Fivush, 1994).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는 이전과는 다른 성역할(sex-role)과 사회적 규범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문명의 발달은 점차 물리적인 힘보다는 지적인 능력을, 조화와 타협 보다는 경쟁심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적 요구는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 남성다운 행동과 여성다운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정된 시각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존여비의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도 여성관련 규범은 산업화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문화의 차원으로서의 경직성과 사회규범

사회적 규범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강제나 정부의 공식적인 선포에 기대지 않는 사회적 규칙을 말한다(Posner & Rasmusen, 1999).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라 공공장소나 대인관계에서 관습적, 도덕적,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언행이나 금지되는 언행을 가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금지와 제재는 불평등한 사회제도와 맞물려 부지불식간에 여성들에게 성취나 자아실

현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지게 만들고, 대신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수용이나 인정, 긍정적 평가에 대한 순응성을 내면화하게 만든다. 따라서 여성들은 도전보다는 안주를, 사회보다는 가정을 택하는데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심리학에서 여성관련 규범이 여성이 속한 사회와 문화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였으며, 규범속에 자리한 사회적 제재가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실증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경직성 혹은 제약성(tight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규범의 형성과정과 그 영향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다.

문화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범의 수가 많고, 규범이 경직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가 심한 사회를 ‘경직된 문화(tight culture)’라 하고, 이와 반대로 사회적 규범이 느슨하고, 일탈행위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가 강하지 않은 사회를 ‘느슨한 문화(loose culture)’라 한다(정태연, 김지영, 김기범, 김양하, 2004; Chan, Gelfand, Triandis, & Tzeng, 1996; Kim, Lee, Hu, & Gelfand, 2004; Triandis, 1989, 1995 등). 다시 말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는 그 사회가 속한 사회문화적, 역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강도와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된다. 문화의 개방성 혹은 느슨함, 경직성 혹은 구속성은 문화권내에서 규범들이 명백히 정의되고 신뢰롭게 부과되는지의 정도에 따라 정의된다(Pelto, 1968).

이 구성개념의 이론적 형성은 인류학자인 Pelto(1968)로 거슬러 가는데, 그는 전통적 사회들이 사회적 규범을 고수하고 표현하는 데

다양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Pelto(1968)는 Pueblo 인디안과 Hutterite들을 경직된(tight) 문화로 분류하면서, 이 두 사회 모두 엄격하게 정형화되어 혼용되었고 높은 규범 추종을 보인다고 보았다. 반면, 타일랜드와 북부 핀란드의 Skolt Lapp족을 느슨한 문화라고 분류하면서, 여기에는 규범이 폭넓고 다양한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 표현되며 혼용이 부재한다고 보았다. 불행히도 그 이후로 이러한 문화적 차원에 대해 수행된 연구나 개발된 이론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들어 Triandis(1989, 1995)는 심리학 문헌에서 경직성-느슨함을 다시 소개하고 이를 개인주의-집합주의 및 문화적 복잡성 같은 다른 차원들과 구분지었다. Triandis(1989, 1995)등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의 경직성과 느슨함은 그 사회가 가진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본 연구는 문화의 경직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통해 생태-역사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규범,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관계성을 그림 1과 같이 가정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속한 사회의 생태적-역사적 환경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의 구조, 즉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적 제재는 여성 개인의 심리적 차원과 상호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규범행동을 조절하게 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한국여성들의 규범내용이 가지는 특성과 사회적 제재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각각의 차원에 속한 요소들이 사회규범과 가지는 관련성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다.

그림 1 모형의 다차원 이론은 차원(수준)안의 요소들이 질적으로 유사하고 서로 다른 차원간에는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는 일종의 체계(system)를 가정한다(Rousseau, 1985 등). 그리고 어떤 체계에서든 이들 수준간에는 기능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Chan, Gelfand, Triandis, & Tzeng, 1996). 또한 사회적 제재는 개인의 심리적 과정 속에 있는 자기개념 및 욕구, 동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규범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모형을 가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문화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문화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규정한다. 즉 문화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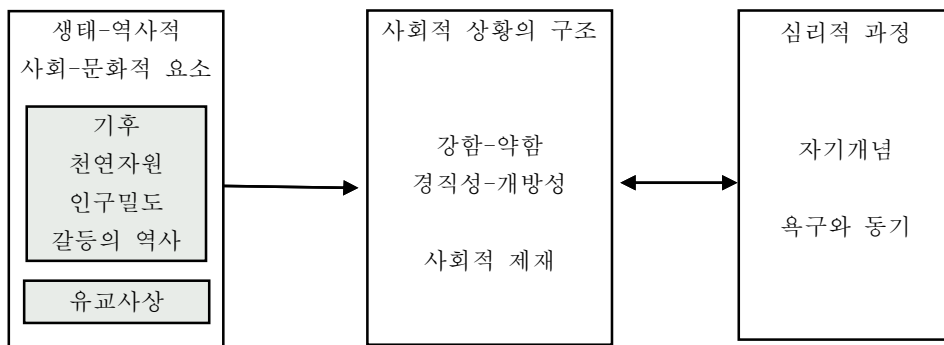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의 차원, 상황과 심리적 과정

주. Chan, Gelfand, Triandis, & Tzeng(1996); Kim, Lee, Hu, & Gelfand(2004)의 모형을 적용함.

된 의미체계(shared meaning system)로 인간이 만든 인공물 - 도구, 제도, 법률, 관습, 건축물 등 - 을 통해 구현되어지고, 인간의 심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Bruner, 1990; Cole, 1995). 의미체계로서의 문화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규칙, 다시 말해 규범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나 감정 같은 인식론적 지식과 규범, 법률 등의 사회적 제도, 인공물들을 분류, 인지하고, 가용하게 함으로써 그 문화 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실을 창조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Lillard, 1998). 결국 사회규범은 사회-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규범은 여성의 심리특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반대로 여성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차원적 이론을 취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수의 문화심리 및 비교문화연구들이 가치나 태도와 같은 개인심리로 사회문화적 변인을 환원함으로써 생태학적 수준과 사회적 상황, 심리과정이라는 각각의 수준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분석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Malpass와 Poortinga(1986)는 비교문화연구가 단순히 문화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간 혹은 문화내 비교문화연구를 다수준적 관점에서 실시할 때 각 수준이 가지는 역동적 관계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문화의 영향에 의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과 인간행동을 문화비교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인과 여성에 관한 사회규범

다차원적 이론에서 생태적 환경과 역사적 요인은 그 문화의 경직성 정도를 결정하는 포괄적이고, 일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태-역사적 측면에서 사회규범과 사회적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기후조건과 갈등의 역사이다. 추운 기후는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존과 사회유지를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규칙과 제재를 형성하게 된다(Triandis, 1995). 또한, 외부 갈등의 역사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제재가 강하고, 그렇지 않은 문화권은 사회적 제재가 약하다. 외부와의 갈등을 겪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우려가 있는(또는 실제로 받은) 나라들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경향이 있다. 질서정연하고 견고한 결속을 지닌 사회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혼란이 닥쳤을 때 일어나는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잦은 외침에 맞서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붕괴되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역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밀집정도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사회는 인구밀도가 낮은 사회보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혼란이 빈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회적 상황에서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엄밀한 규칙과 그 규칙을 어긴 경우에 가하는 제재를 발달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규범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사회적 제재도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Chan, et. al., 1996).

또한, 그 사회가 보유한 천연자원의 양도 사회적 상황과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사회규범이 잘 발달되어 있고 사회적 제재가 강한테, 이는 한정된 자원을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없이 분배하고, 또 부족한 자원으로 그 사회를 영위, 번영시켜 나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과 사회질서를 엄격한 규범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Pelto, 1968).

이러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또하나의 요소는 종교적-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한국의 제도, 관습, 법률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종교 및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권순형, 1996; 나은영, 민경환, 1998; 이순구, 1999; Sternberg, 1982). Hwang(1999)에 의하면, 유교문화에서 사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가족구성원은 한 몸으로 존재하며 가족 안에서의 자신이 수행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역할들은 수직적이고,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역할을 벗어난 경우 강한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므로 유교주의의 세례를 받는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회규범도 남성과 차별되는 여성의 역할과 행동을 규정하고,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에 뿌리를 둔 미국여성들과 한국여성들이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의 차원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Au, 1999; Sternberg, 1982; Kim, Pan, & Park, 1998)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문화권에서 집합주의 특성이 나타나고, 사회적 상황이 극히 제약적인 것은 유교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태연 등(2004)과 Kim 등(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문화는 미국 문화에 비해 경직성이 강한 문화로 분류되었다. 그림 1의 이론적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의 경직성과 느슨함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역사적 요소로는 인구밀도, 천연자원, 기후와 갈등의 역사 등이 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으며,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연평균 기온이 더 낮아서 미국에 비해 추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사적 기록에서 보면 많은 전쟁과 외침(外侵)이 있었다. 비록 건국의 역사가 짧지만 미국의 경우 매우 적은 전쟁이 있었을 뿐이다(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1999; United Nations, 1998 참조). 이러한 생태-환경적, 사회-역사적 요소들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서 문화적 경직성이 강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지각하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가진 규범의 명확성에 대해 분석했다. 질문문항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가 가진 규범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규범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는 사회규범의 명확성은 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 자기 성장에 대한 집중(Promotion focus)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성장에 대한 집중이란 개인이 살아오면서 평소 얼마나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와 반대로 개인이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 자기 보호에 대한 집중(Prevention focus)인데,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

해 자기보호에 대한 집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문화적 경직성이 높으며, 한국의 사회구성원들이 미국의 사회구성원들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나 욕구보다는 주변인들의 기대나 사회규범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규범에 대한 본 연구도 한국과 미국의 여성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속에서 서로 다른 규범과 제재의 강도를 가지고, 그러한 사회적 제재에 의해 여성들의 자아개념과 욕구, 동기가 조절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 사회에서 여성에 관한 규범은 여성들의 행위 중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사회집단들은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름표를 붙인다(Becker, 1963). 예를 들어, 많은 남성을 사귀는 여성을 ‘문란한 여자’로, 화장이나 옷차림이 야한 여자를 ‘천박한 여자’로, 남성들도 많은 여성을 사귀거나, 야한 옷차림을 할 수 있지만 여성과 같은 낙인이 찍히지는 않으며, 일단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름표가 붙여지게 되면 그것은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는 부정적인 이름표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따라서 그 사회는 규범에서 이탈하는 여성에게 이름표를 붙이고, 이름표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의 심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을 강요당하는 과정들은 사회적 집단이 가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규범과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 즉 제재에 관련된 부분이다. 사회적 제재는 현재의 사회가 가지는 특

성으로 그것은 앞서 언급한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때리는 등의 어떤 행동들은 규범과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재하는가에 있어 법률과 규범은 차이를 보인다. 법률은 단속경찰이나 법원과 같은 공식화된 제도들을 가지고 피의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리는 등의 제재를 가지지만, 규범은 이런 방식으로 강제되지 않고 피해를 당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당하거나, 행동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불승인, 비난 등에 의해 강제된다(Posner & Rasmusen, 1999).

이러한 사회규범이 가지는 비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제재의 특성상, 여성 개인이 가진 자아개념이나 인지구조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제재를 당하는데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Jamieson & Zanna, 1989; Neuberg & Newson, 1993; Smith & Gordon, 1998; Wester & Kruglanski, 1994),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고자 하는데서 궁극적으로는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이나, 역으로 규범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야기될 것이라고 짐작된다.

여성관련 규범은 여성들의 행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수단이다. 비록 벌금을 물거나, 신체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전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주정을 하거나,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금기시 한다. 규범을 어긴 경우, 돌아오는 사회적 제재는 그 문화안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규범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상황 및 심리적 과정에 대한 다차원적 혹은 다수준적 접근을 위한 예비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생태-역사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경직된 사회적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과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심리적 발달 과정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험적으로 한국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 규범의 특성과 사회 규범을 위반했을 때 예상되는 제재 및 심리적 반응들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과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질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의 내용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여성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동들의 목록을 분석하고, 그러한 사회규범 위반행동에 대한 심리적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편의적으로 여대생을 선정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여대생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2세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여학생들로 강의시간에 집단적으로 설문

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4년 9월 한달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도구 및 절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으로는 먼저, 일반적으로 여자답지 못하거나, 여자들이 해서 보기 안좋은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황(장소)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문항, 두 번째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행위 당사자에게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는 문항, 세 번째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기분을 느꼈고 그러한 기분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응답식으로 기술하는 문항이었다.

분석

내용분석은 조사대상자들의 자유응답식 응답내용을 모두 기록한 후에, 이를 세 명의 대학원생들이 질문 문항별로 비슷한 응답내용들을 범주화하는 분석을 일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개별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 후 분석자간 신뢰도(.65)를 측정하였고, 이후 다시 개별적으로 이차 분석(분석자간 신뢰도 = .83)을 실시하였다. 이차 분석에서는 범주화의 근거를 단순히 어의적 수준에서 하지 않고, 의미별로 범주화하는 단계를 거쳐 반응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 영역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각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분석자간 신뢰도 .92)을 고려하여 범주와 내용을 확정하였다.

결 과

여대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여성스럽지 못하거나 여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질문했다. 수집된 질적 자료의 내용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여대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스럽지 못하거나 여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행동’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술에 만취해서 추태 부리기’, ‘여러 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욕하기’, ‘다리 벌리고 앉기’,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수다 떨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공공규범을 위반함으로써 타인들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동으로 남, 녀 모두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과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받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먼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들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행동’, ‘다리 벌리고 앉기’,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속옷이 보일 때’와 ‘장소 구분 없이 화장을 고칠 때’ 등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여성들이 여자가 해서는 안 되고, 여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담배와 술에 관한 것을 응답했는데, 담배의 경우 한국에서 여성들의 흡연인구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직도 금기시되는 것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즉 담배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것은 남성들의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여성들과 비교해서 정도의 차이를

표 1. 여성스럽지 못하거나 여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

반 응 내 용	빈도(%)
1.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행동	57(17.80)
2. 술에 만취해서 추태 부리기	42(14.28)
3. 여러 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욕하기	36(12.33)
4. 다리 벌리고 앉기	26(8.90)
5.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수다 떨기	21(7.19)
6. 길거리에서 침 빨기	19(5.51)
7.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 입어 속옷이 보일 때	19(5.51)
8. 음식점에서 게걸스럽게 먹기	12(4.11)
9. 팔자걸음으로 걷기	11(3.77)
10. 장소구분 없이 화장 고칠 때	10(3.42)
11. 길에서 껌 씹기	7(2.40)
12. 머리카락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6(2.05)
13. 자기의사 정확하게 전달하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들기 다리떨기	5(1.71)
14. 공공장소에서 입 가리지 않고 하품	4(1.37)
15. 기타	32(10.96)
총 계	292(100)

주. 중복응답

보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한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성에게 적용되는 규범 행위는 다시 여성다운 매력에 반하는 범주-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담배피기와 정숙한 여성상에 반하는 범주-예를 들어 다리 벌리고 앉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관련 규범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회규범이 보다 강력하게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여성의 행동만을 규제하는 성차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중요한 특성으로 흡연 및 음주, 정숙한 여성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나 남성이 나타내는 성차별적인 행위나 의견표현은 때로 자신이 가진 신념의 표현 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특정 사회속에서 성장한 개인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기상을 제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Rosell & Hartman, 2001; Rudman, 1998 등). 또한 그것을 어긴 경우에 야기되는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통해 자아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여성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에 의해 규범을 준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규범준수 동기의 두 가지 측면 -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은 여성스럽지 못한 행동이나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경우의 부정적인 결과(표 2)와 규범위반 행위를 했을 때 느꼈던 기분(표 3)에서 잘 나타나 있다. 두 가지는 모두 폭넓은 의미로서의 사회적 제재라 할 수 있는데, 먼저 행위위반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면 주로 사회로부터 부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기 이미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여성이 성차별적인 여성규범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은 타인으로부터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위해 사회규범을 지키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인 ‘안 좋은 인상과 이미지

표 2. 행동에 따른 부정적 결과

반 응 내 용	빈도(%)
1. 안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갖게 된다	94(33.45)
2.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수군거림	83(29.54)
3. 범죄에 노출된다	27(9.61)
4. 건강에 해롭다	22(7.83)
5.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한다	6(2.14)
6. 남자들이 함부로 대할지 모른다	6(2.14)
7. 연애는 많이 해도 결혼하기는 힘들다	5(1.78)
8. 경찰에게 발각되면 벌금내야 한다	5(1.78)
9. 기타	33(11.74)
총 계	281(100)

주. 중복응답

표 3. 규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느꼈던 기분

반 응 내 용	빈도(%)
1. 부끄러웠다	29(24.37)
2. 불편	21(17.95)
3. 별 느낌 없다	21(17.95)
4. 후회	15(12.82)
5. 기분 좋음	15(12.82)
6.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듯한 기분	5(4.27)
7. 기타	14(3.42)
총 계	117(100)

주. 중복응답

를 갖게 된다’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인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수군거림’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라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에 노출’이나 ‘건강에 해

롭다'는 등의 반응이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규범 위반 행동을 했을 느꼈던 기분을 보면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이 여성에게 어느 정도 내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대생들은 '부끄러움', '심리적 불편', '후회'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느꼈다고 응답했다. 규범을 깨뜨리는 통쾌함 때문에 기분이 좋다거나, 중성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비해서는 소수였다. 그러나 긍정적이거나 중성적 경험이 개인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고정관념이나 통념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차에 고정관념에 대한 갈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들 스스로도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사회규범의 비정당성이나 불평등성에 대해 반발보다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시업 등(2003)과 김기범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개인의 자율성보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대인관계 윤리 등의 사회규범을 위반했을 때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제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부끄러운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스럽지 못하거나 여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 규범을 위반했을 때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로 인한 창피함이나 자괴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 여성들은 휴연에서부터 앓는 자세와 걸음걸이, 밥먹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을 부당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에 의해 불평등한 사회규범을 준수하게 되고, 사회화의 과정에서 규범은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재는 비록 미국여성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비교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미국보다 문화적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 받아 미국보다 더 세세하고 많은 여성관련 규범을 가질 것이고, 그것을 어긴 경우에 당하게 되는 제재도 엄격할 것이라고 추론된다.

논의 및 제언

어느 문화나 사회에서든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규범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차별적 사회규범은 그 사회의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사회마다 각기 다른 내용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심리로 환원하지 않고 다차원적 접근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과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당하게 되는 사회적 제재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문화의 경직성과 느슨함의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분석, 추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생태적·역사적 환경의 영향이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미쳐 한국사회가 많은 사회규범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규범들이 세세하고 명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국문화의 경직성이 여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특히 유교적 전통을 지닌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해 성차별적인 규범이 분명하고, 많이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에 관한 한국사회의 규범은 남성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도 있으나 여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한 성차별적인 내용은 여성다운 매력, 정숙한 여성상과 관련된 것들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규범 위반시에 뒤따르는 사회적 제재에 대한 지각 및 평가로는 부정적인 인상과 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나 수근거림 같은 사회적 불승인 및 부끄러움이나 불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유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에 대한 제약이 강한 문화권의 사람들, 다시 말해 문화적 경직성이 높은 사회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더 주목하며, 규범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는 경향성이 높다(Chan, Gelfand, Triandis, & Tzeng, 1996). 따라서,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경직된 사회적 상황, 즉 사회적 규범이 엄격한 상황에 적응하여 살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경직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혹은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행동양식, 정서적 반응 및 인지적 도식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직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 규범적 특성이

강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동기 및 욕구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성을 함유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훈육을 하게 되고, 사회적 상황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혹은 의식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승인의 과정을 통해 심리속에 내재하게 되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혹은 편견적 태도에 의한 행동이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 평가와 부끄러움이나 심리적 불편감 등의 부정적 경험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고(비록 그것이 고정관념이자 편견이라 할 지라도), 규범을 위반했을 때 수반되는 사회적 제재와 부정적 경험을 피하고자하는 욕구나 동기가 내재되어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규범의 발생 배경과 사회,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자기 개념, 욕구 및 동기 등)을 설명하는 다수준적 모형을 제시하여 검증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규범의 특성과 심리적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수준별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인과관계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여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의 구성과 생성과정에 대한 생태적·역사적 요인들과의 관계 분석과 이를 토대로 문화간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 경직된 사회인지, 경직성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혹은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 등에 대한 분석과 문화간 비교를 통해 문화적 특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 규범의 특성과 여성들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양적으로 남성과 다를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른 존재인 여성, 서구의 여성과 구별되는 제 3 세계 여성 등을 다루려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그러한 심리적 특성을 배제한 생태적 환경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한국 심리학회에서도 그간 여성에 관한 성역할이나 고정관념, 혹은 여성의 자아정체성과 같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연령, 계층 등의 인구학적 변인을 동시에 다룬 연구들은 많았으나 사회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상황을 심리와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은 기존의 심리적 환원주의와 실험위주의 접근법에 대한 한계와 제한점에 근거한다. 심리적 환원론에서 문화는 가치나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로 환원되면서, 사회적 구조나 제도 및 경제문화적 조건 등은 무시되어왔다. 따라서 이상주의적 접근의 한 대안으로서 생태적 요소들을 고려한 다수준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사회 현상이 개인 수준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성질이며, 따라서 내성법이나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의 마

음은 역사적 산물로 개인의 의식경험의 연구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언어와 문화와 같은 집합적인 정신산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상진, 2000; Bruner, 1990; Cole, 1995; Farr, 1996, p. 26).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적 규범에 관한 본 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학제간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준(다차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여성심리 연구에 있어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순형 (1996). 조선시대에도 이혼을 했을까. 한국역사연구회(편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pp. 25-36). 서울: 창년사.
- 김기범, 김양하 (2004). 자의식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의 경험 준거 및 심리적 기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29-45.
- 김시엽, 김기범 (2003).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도덕적 self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87-101.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이순구 (1999).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여성.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편), 우리여

- 성의 역사 (pp. 163-191). 서울: 청년사.
- 정태연, 김지영, 김기범, 김양하 (2004). 문화의 새로운 차원 Tightness와 Looseness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187-188.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Au, K. Y. (1999). Intra-cultural variation: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4), 799-812.
- Becker, H. S. (1963). *Outsiders*. New York: Free Press.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n, D. K-S., Gelfand, M. J., Triandis, H. C., & Tzeng, O. (1996). Tightness-looseness revisited: Some preliminary analys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1(1), 1-12.
- Cole, M. (1995). Culture and cognitive development: From cross-cultural research to creating system of cultural mediation. *Culture and Psychology*, 1, 25-54.
- Farr, R. M. (1996). *The roots of moder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MA: Blackwell.
- Golombok, S & Fivush, R. (1994). *Gender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5.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Hwang, K. K. (1999). Filial piety and loyalty: Two type of social identification in Confucianism.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163-183.
-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IMDS) (1999).
- Jamieson, D. W., & Zanna, M. P. (1989). Need for structure in attitude 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 383-406). Hillsdale, NJ: Erlbaum.
- Kim, D., Pan, Y., & Park, S. H. (1998). High-versus low-context culture: A comparison of Chinese,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Psychology & Marketing*, 15(6), 507-521.
- Kim, K., Lee, C-W., Hu, S-H., & Gelfand, M. (2004c). Cultural tightness and loosenes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Xian, August 2-6, China*.
- Lillard, A. (1998). Ethnopsychologies: Cultural variations in theories of mind. *Psychological Bulletin*, 123(1), 3-32.
- Malpass, R. & Poortinga, Y. H. (1986). Strategies for design and analysis. In W. L. Lonner and J. W. Berry(Eds.), *Field methods in*

- cross-cultur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Pelto, P. J. (1968). The differences between tight and loose societies. *Transaction*, April, 37-40.
- Neuberg, S. L. & Newson, J. T. (1993). Personal need for structu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sire for simple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1), 113-131.
- Posner, R. A. & Rasmusen, E. B. (1999). Creating and Enforcing Norms, with Special Reference to San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9, 369-382.
- Price, R. H. & Boufford, D. (1974). Behavioral appropriateness and situational constraint as dimension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79-586.
- Rosell, M. C. & Hartman, S. (2001). Self-presentation of beliefs about gender discrimination and feminism. *Sex-Roles*, 44, 647-659.
- Rousseau, D. M. (1985). Issue of level in organizational research: Multilevel and cross-level perspectives. In L. L. Cummings, & B. M. Staw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values*.
- Rudman, L. A. (1998). Self-promotion as a risk factor for women: The costs and benefits of counterstereotypical impression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29-645.
- Sternberg, D. I. (1982).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A review article. *Journal of Asian Studies*, 42(1), 90-104.
- Smith, M. R. & Gordon, R. A. (1998). Personal need for structure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The Journal Social Psychology*, 138(1), 83-87.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u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United Nations. Dept of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Statistical Office (1998). *Statistical yearbook*. (37th Ed.) NY: United Nations.
- Wester, D. M. & Kruglanski, A. W.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49-1062.

A Preliminary Study of Psychological Func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Norms for Women in Korean Society

Ji-Young Kim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bum Kim

Sungkyunkwan University

A preliminary study was conducted by multilevel approach on how social norms for women has developed and to investigate some characteristics of social norms for women in Korean society. The assumption of this study was that ecohistorical factors might influence on social situation, and then the social situation might interact with self-concept, desire, and motive, which could guide individual to behave in a certain way. A total of 130 female university students wa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 open format was administrated.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social representations of what kinds of social norms for women were, social evaluations for transgression of social norms for women, and psychological response of social evalua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women violated social norms, they experienced negative social evaluations, and felt shame and psychological anxiety even though social evaluation of the transgressions of social norms was likely to be benevolent to men. Consequently, most women were more likely to behave according to social norms as well as they will be likely to inhibit norm transgressive behavior themselves.

key words : culture, woman, social norm, multilevel analysis, social sanctioning

1차 원고접수: 2005. 5. 14.

심사통과접수: 2005. 6. 7.

최종원고접수: 2005. 6. 15.